

대장내시경 검사

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상욱



대장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대장내부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내시경 끝에 연결된 카메라에서 TV 스크린으로 영상을 전송하게 되면 의사는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의 유무를 관찰하게 됩니다. 대장 조영술검사에 비해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바로 조직검사를 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소 길어 질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어떤 환자에서 시행하게 되나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받게 되는 경우는 대장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장암의 발생율이 증가되는 연령의 일반인에서 대장암 조기 발견의 선별 검사 목적으로 시행되며 이 전에 대장 용종을 제거한 환자에서 추적 검사 목적으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 한가요?

정확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장관 내를 깨끗이 비우는 장정결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검사 당일 장정결제를 다 복용한 후에 혈압약, 심장약을 복용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스피린, 플라빅스, 쿠마딘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진료의사와 상의한 후 검사 최소 5일 전부터 복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검사 3일 전부터 참외, 수박, 포도등 씨 있는 과일이나 미역, 김, 흑미, 현미, 콩, 깨 등의 잡곡, 거친 채소(시래기, 무 등), 견과류 등은 검사에 지장을 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4시 이전에 반찬 없는 맑은 유동식 또는 흰죽과 같은 건더기 없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가볍게 드셔도 됩니다.



장정결제는 어떻게 복용을 하게 되나요?

3L를 복용하는 두 가지 장정결제와 기존의 4L를 복용하는 콜라이트액이 있습니다.

- 피코라이트산: 3포가 들어 있으며 각 1포를 물 150ml에 넣고 저어준 후 마시면 됩니다. 마시는 방법은 다음 날 오전에 검사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라면,

첫번째 약: 검사 전날 6시 1포 복용 + 물 1L

두번째 약: 검사 전날 저녁 9시 1포 복용 +물 1L

세번째 약: 검사 당일 검사 시작 5시간 전 1포 복용 + 물 1L을 복용

- 쿨프랩산: A제 4포, B제 4포가 들어 있습니다. A제 1포와 B제 1포를 500ml 통에 넣은 후 생수를 표시선까지 채운 뒤 흔들어 녹입니다.

검사 전날: 저녁 9시에 2포의 쿨프랩산 500ml 2차례 복용 + 물 500ml 복용

검사 당일: 아침 6시에 2포의 쿨프랩산 500ml 2차례 복용 + 물 500ml 복용

이때 장정결제를 드시면서 반드시 대변이 물처럼 나오는 것을 확인 하여야 검사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정결제를 충분히 복용 하였는데도 대변이 묽게 나오지 않으면 검사 전에 진료의나 간호사에게 말씀을 하시어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내시경 시술 후에 간혹 배가 아프거나 항문에서 피가 나올 수 있나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주입된 공기로 인해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나 가스가 배출되고 나면 곧 편안해집니다. 검사시 투여된 진정제 때문에 어지러움증, 구토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나 2~4시간이 지나면 완화 됩니다. 조직검사를 한 경우에는 대변에 피가 조금 섞여 나올 수 있으나 곧 멈추게 됩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후에는 바로 운전해서 집에 갈 수 있나요?

최근 대장 내시경 검사를 수면 유도하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 후 2시간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시술 중 투여된 약제에 의해 한동안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졸리거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검사 당일은 자가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다루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삼가십시오. 가능하다면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위험하지는 않나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매우 드물게(1000명 당 1명 이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에는 호흡장애나 혈압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투약에 따른 합병증, 출혈, 대장의 천공, 감염 등이 있는데 드물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응급 처치를 요하므로 심한 복통, 출혈, 구토, 고열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 내원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